

# 고전문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편집자 주]**

연세대학교는 국문학 연구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진리자유는 연세대학교 개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문학, 특히 전통 고전문학 연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세계화시대에 한국전통문학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한국고전문학을 연구하고 많은 제자를 배출해 낸 최철 퇴임교수와, 고전문학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고 있는 조규익 교수를 모셨으며, 오랜 경험과 현장에서의 활발한 활동에 토대를 둔 두 전문가의 해안을 엿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



대담 : 최 철· 연세대 퇴임교수  
조규익· 송실대 교수

## (1) 한국 고전문학의 '역사바로세우기'

**조규익** 현재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담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사바로세우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기에 봉착한 인문학 가운데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문학·사학·철학이고, 고전문학은 그 중심에 위치합니다. 인문학이 맞이한 위기의 근원에 대하여 새삼 숙고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우리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백화제방 식으로 난무하는 우리사회의 '역사바로세우기' 담론과 국문학의 과거·현재·미래가 아주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물론 요즈음의 역사바로세우기 담론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도를 약간만 달리 하면, 역사바로세우기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고전문학연구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우선 한국 고전문학 연구의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신 최철 선생님께서, '우리 고전문학 연구의 출발이 과연 어떠했으며, 어땠기에 오늘날과 같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하여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철**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 『동방고전문학연구』(연세대학발간 저널)에서 기술한 바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근대 학문이 시작된 것은 1920년대에 들어와서이지요. 1920년대는 일본사람들의 식민지 통치가 시작되던 시기로, 서울에는 동경대학교와 비슷한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의 법문학부 내에 조선문학을 전공하는 과가 있어서, 근대적인 서양학문의 이론연구와 동시에 본격적인 국문학 연구가 시작되게 됩니다. 방금 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저 역시 현 정권에 와서 역사바로세우기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과제라면, 그 과정 중에 가슴 저미는 아픔과 슬픔과 허탈함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초창기 문학연구는 주로 식민 통치하에서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민족주의 민족자존의 애국애족 정신에 뿌리를 두고, 문헌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요. 도남 조운제 선생은, 자신이 국문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

답을 했습니다. "경술년에 우리 민족이 최대의 치욕을 받은 이후에 정치가는 마음에 칼을 품고 국내외에서 치열한 애국 투쟁을 하였으며, 문필가는 붓을 들어 우리의 문화 양양에 큰 노력을 할 때에, 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고취하여 보고자 우리 고전문학 연구에 발을 들여놓았다." 조운제 선생 외에도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위당 정인보 선생이라든가, 이능화 선생이라든가 장지영 선생 또는 양주동 선생같은 분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문헌 고증, 즉 문헌학을 바탕으로 학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국문학사에서 국학파라고 불렸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지요.

국학파가 한 축이라고 한다면, 이와 대치점을 이루는 또다른 한 축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대출신의 학자들로 이루어져서 성대파라고 불리는 학파입니다. 성대파 출신으로 앞서 말한 조운제, 방종현, 고정옥같은 이들 역시 문헌학에 토대를 두었지만, 그 근원은 다소 달랐지요. 왜냐하면 이들을 가르쳤던 다카하시같은 동경대 출신 일본 교수들은, 당시 철학담론보다는 정치담론이 우세하던 독일에 유학하여 독일 학풍의 분위기를 학문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성대에 있던 일본인 교수들은 자연히 조선식민지 통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 이러한 교수의 영향을 받은 성대파 출신들은 아무리 민족주의 정신에 고취되었다 하더라도 일본인들의 정치노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식민통치를 철저히 뿌리내리기 위해 조선의 역사 풍속 관습 종교 등 생활상태 전반을 조사하고 민요도 채집했습니다. 이리니 걸로 보면 국학파든 성대파든 문헌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 출발점은 아주 상반되었던 거지요. 정치적 통치 목적의 일환으로 우리 문학을 가르쳤던 일본 교수와 그 밑의 성대파가 당시 국문학계에 주류를 형성하였으니, 우리 국문학의 출발은 결국은 처음부터 다분히 잘못될 여지가 있는 출발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주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학자들의 편향적 시각이 학문의 영역에 접목되었던 거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조** 우리 고전문학 연구의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는 점을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지식인 사회를 주도하던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 두 사

람의 생각만큼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육당과 춘원의 공통점은 그 당시 지식인 사회를 주도하면서도 전통을 철저히 부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춘원의 『민족개조론』을 읽어 보면 철저하게 우리의 과거와 전통사상 및 전통문화를 무시하고, 이른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무정』이라는 소설도 나왔고, 그런 것들을 통해 전통의 타파를 역설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춘원이 보여준 역사외식 및 전통외식의 결여는 결국 나중에 친일이나 반민족으로 가게 되는 출발선이 된 겁니다. 육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물론 처음에 시조를 쓰기도 했지만 옛 시조를 그대로 복제해 놓는 수준에 불과했고, 뒤에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를 창설하여 우리의 역사나 문화 등에 관심을 많이 보였지만, 그 또한 그저 유물로서의 관심이었지 그걸 되살려서 우리 민족문화의 발전이나 부흥을 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1920년대 중반 시조부흥운동의 도화선이었던 육당의 『조선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라는 글이나 춘원의 『시조의 자연률』이라는 논문 등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원래 시조는 우리 민족의 전통예술 가운데 하나인 ‘노래’였는데, 그들은 자수를 헤아려서 지어내는 시문학의 한 형태로 그 의미를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그들의 논의를 발단으로 시조의 형식이 고착되면서 시조 연구 자체가 매우 편협하게 고착되었고, ‘시조자수율’이라는 틀이 만들어짐으로써 지금까지도 우리 고전에 대한 편견이 극복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육당의 경우는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신체시를 발표했는데,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것이 일본의 신체시를 그대로 답습한 작품이며,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나온 모방작 내지 습작 정도로 봅니다. 이렇게 어설플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신문학입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육당과 춘원 식의 관점은 오늘날까지 고전문학이나 국문학의 전통을 왜곡시켜 제대로 발전할 수 없게 만든 첫 단추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우리 문학의 그릇된 출발의 주범으로 성대출신들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조연현 선생이나 백철 선생을 비롯한 초창기 이론가들 역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들이 우리 고전문학의 개념을 잘못 규정했다거나 한문으로 된 문학을 국문학의 범주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 등은 국문학의 발전적 미래에 치명적인 장애로 남게 되었던 것이지요. 육당과 춘원

이 지닌 계몽외식 역시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의 계몽외식이 국문학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 혹시 덧붙여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최** 초기 문학연구에서 육당이나 춘원 이광수가 미친 영향은 사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요. 그들이 내세웠던 학문 방법이나 문학적 해석의 오류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다 보면, 그 중에는 매우 크게 문제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거 선행들이 했던 문학연구의 오류들은 조목조목 밝히고, 그것에 대해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국문학 전통에서 한문학의 정당한 자리매김

**조** 초기 학자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로 쓴 것만이 우리 문학이다’라는 식으로 한국문학을 규정하면서 한문학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문학사를 살펴보면 문학사에서 한문학은 아예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한국한문학’처럼 한국문학의 잉여적인 한 부분으로 처리하는 정도였습니다. 만일 그런 관점이 통용되어야 한다면, 예컨대 서거정의 『동문선(東文選)』이나 근래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문집 총간들 속의 방대한 문학 자료들은 모두 우리 문학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 혹시 이러한 인식이 우리 고전문학을 그르치게 된 편협한 관점은 아닐까요?

**최** 우리 문자가 만들어진 것은 조선초기로 그 이전에 우리 문자는 존재하지 않았지요. 조선 초기 이전에는 어차피 중국 문자인 한자를 빌려와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중국에서 만들어진 문자이기는 하지만, 생각과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한자가 외래문자라는 생각은 조금도 일으키지 않았지요. 마치 현재 우리가 한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 중국 우리나라 모두 다 한자를 통해 사유하는 나라이면서도, 각각의 나라마다 한자의 음은 모두 다릅니다. 다시 말해 한자는 중국의 문자인 동시에, 동양 3국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문자문화로 정착했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통해 문자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자로 표시된 텍스트가 우리 문학이 아니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한자로 쓰인 문헌을 제외하면, 우리 문학에서 논의될만한

문학적 자산의 양은 극히 적습니다. 한자로 표기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는 상고시대나 조선조 이전, 특히 조선조 후기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문학에 대해 결코 논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초창기 문학연구에서는 한글로 표기된 문학만이 순수한 우리 문학이고, 그 이외의 작품은 우리 문학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하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 한자가 남의 문자이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요즘에도 통용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향가를 기록한 향찰만 해도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다가 만든’ 표기체계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한자문학 자체가 한자를 차용하여 창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도 이런 생각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 교육의 현장에서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무 스스럼없이 남의 글자인 한자를 빌어다 썼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선조들이 써놓은 문장을 보면 한자를 남의 글자라고 생각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자연스럽게 갖다 쓴 것이지, 구차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빌어다 쓴다고 하는 부채(負債)감이나 채무(債務)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던 거지요. 한·중·일이 공통적으로 한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자는 누가 누구에게서 빌어다 쓴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자문학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야말로 ‘오롯한’ 우리 문학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와 한문학과가 완벽하게 분리·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되는 것들 중 상당부분이 일치하는 점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육하는 내용이 동일한데, 왜 우리 스스로는 그것들을 분리해놓고 엄청나게 다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고전문학에 대한 이러한 모순적 관점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 아마도 우리 전통에 대한 그릇된 가치매김이 그러한 결과를 낳았을 거라 판단됩니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문학을 완전히 쓸모없는 골동품으로 치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문학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맛과 아름다움을 결코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다소 벗어나서 하나의 야담(野談)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 일본의 민예학자(민속공예가)인 야나기 무네요시나 가와이 간지로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부산을 통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와서 조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릇을 보게 되었고, 자기들이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릇이나 당진요에서 나온 그릇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훨씬 아름다운 것이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나한테 파십시오’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팔 거 있습니까?’하고 그냥 쥐버렸습니다. 곳곳에 그런 그릇들은 수없이 많았고, 이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릇을 그냥 모아 배에 싣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조선의 자기를 수집하기 위해 열을 올렸고, 아이들을 앞세워 조사를 하는가 하면, 개성 고분에서 고려청자를 도굴해갈 정도였습니다. 뒤늦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자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지만, 일본으로부터 되사오는 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한 예로 푼돈에 일본으로 팔려간 도자기가 몇 년 뒤 조선으로 다시 건너와 조선구락부라는 곳에서 경매를 거치고 나서, 무려 1400엔(1억4천만 원 정도)에 우리나라 사람의 수중으로 되돌아왔을 정도니까요. 우리는 눈이 멀어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버루를 보고 ‘세상에 어떤 민족도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는 가와이 간지로의 안목을 당사자인 우리 자신은 지니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그런 유물을, 그 소중한 우리의 소설 우리의 문학을 헐값으로 내놓고 팔아치우려는 겁니다. 향가나 고려가요같은 작품들은 정말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버려진 헐값의 골동품 취급을 받고 있지요. 선생도 눈이 없고 학생도 눈이 없고, 왜 이 작품이 우수한 것인가를 밝혀야 하는데 여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신라의 유물 가운데, 불상 석굴암 도기같은 건 이젠 세계적인 것입니다. 신라의 불상은 세계 조각시장에서 첫 번째 간다고 합니다. 세계의 인류학자들이 석굴암에 올라가 보고는 내려오다가, 도저히 걸음을 떼지 못하고 다시 올라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신라의 문화유산 가운데 오로지 글자로 표기된 문학작품만은 지금에 와서도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서양이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말을 알고 우리 글자에 대한 소견이 있다면, 이들에 의해서 우리문학은 고려청자처럼 빛나는 유산으로 가치가 매겨질 겁니다. 그들은 우리글을 몰라서 평가를 못할 뿐이지만, 우리는 우리말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 조 선생님이 『동문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향가, 고려가요, 한문으로 표기되었던 시 문들 속에는 엄청난 보석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훌륭한 보석을 지금 쓰레기로 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 점에서 역사바로세우기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문학의 유산을 바로 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상이라든가 구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조선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가장 절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눈을 뜨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선 국문학 연구자들의 문제는 자신의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스스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있음을 절감하겠군요. 아마도 그 근원은 식민 상황에서 초창기 학자들이 제대로 된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없었고, 그런 이유로 한문학을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우리가 지닌 전통을 살리지 못했던 점에 있는 듯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식민 상황에 처한 지식인의 한계일 수도 있었겠지요. 어쨌든 이런 과거의 문제들이 아직도 개선될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더욱 큰 비극인 듯합니다.



### (3) 고도 정보화 사회에 직면한 한국 고전문학의 오늘

**조** 전통문학의 자리매김이 잘못되었고, 그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시대는 사정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만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통이 제대로 확립·전승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로 인해 이 시대의 주축인 젊은이들은 전통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책 없는 고도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오늘날 인문학이나 국문학의 위기를 초래한 요인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문학작품도 이제는 전산화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컴퓨터 공간으로 흡수되었습니다. 홍길동전을 치면 홍길동전이 나오고, 관련 사진 자료도 나오고, 영화나 연극으로 구현된 홍길동전도 나오더군요. 또 심청전하면 판소리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음반으로도 나오고, 어쨌든 누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그저 글자 텍스트 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를 포함한 예술 전반적인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야 향가를 가르칠 땐 노래나 뜻만 가르치면 되었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측면을 연관시켜야 합니다. 예컨대 향가를 공부하기 위해선 신라시대 불교정신을 알아야 되고 불교예술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작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IT 산업에 융화되어, 일반 대중이나 더 나아가서 외국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런 문화 흐름의 한 복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성실함과 독창적인 혜안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심청전 판소리의 한 대목을 마음껏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식정보화사회의 주요 기술적 현안들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가 되지 못합니다. 아마 나보다 조 선생이 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 지금은 지식이나 정보가 부를 창출하는 고도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예컨대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logy Technology), ET(Environment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등과 함께 CT(Culture Technology) 즉 문화콘텐츠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의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용학과 인터넷의 전성시대인 요즘은 국문학은 더욱더 젊은이들에게 고리타분한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전문학이 과연 IT나 CT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것은 분명 고전문학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가 곧 기회’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문화콘텐츠의 구축을 통해서 국문학이 처해있는 현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여러 가능성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문화콘텐츠 산업은 국문학의 입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탈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전문학이 과연 이 시대에 버려진 영역이 될 것인가, 과연 걸보기에 그렇듯이 내면적으로도 위기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각 대학 도서관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개인들도 많은 고전문학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문화콘텐츠로 개발·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고전문학 텍스트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무한한 부가가치의 새로운 문예 형태로 재생될 수 있지요. 춘향·심청·홍길동같은 주인공들을 캐릭터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영상매체나 멀티미디어의 콘텐츠로 활용할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어떤 정부기관이 발주한 고전문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고전문학이나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산업이야말로 바람직한 미래 산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미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는 기관을 문화관광부 산하에 만들어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콘텐츠가 두드러진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각광받게 된 셈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사라든지 풍속, 고전문학 등은 더 이상 박물관이나 학자의 서재에 처박아 둘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생되어야 할 귀중한 문화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소설 『임진록』이 전쟁 게임으로 오늘날에 재생될 수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놀이나 게임을 통해서 우리 고소설이 재생된다! 듣기만 해도 신나는 일이지요. 몇 년 전 미국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당시 그곳 아이들에게 크게 인기 있던 것이 일본 게임이었습니다. 그 게임은 일본의 정

신을 담은 것들이었지요. 그 아이들은 제게 ‘자기들은 일본을 꼭 가보고 싶다. 왜? 이렇게 재미있고 멋진 게임을 만드는 나라라면 얼마나 멋지겠는가’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그곳 아이들 열에 7, 8명은 전부 일본 정신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고전 문학을 콘텐츠로 가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영상으로 제공한다면, 사실은 단순히 돈을 번다는 산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정신적 측면에서도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한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한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영상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동남아·중국·일본인들에게 다가가는 문화현상이 아닐까. 이런 것도 역시 문화콘텐츠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매체와 고전문학의 만남, 또는 현장과 자료로서의 고전문학, 이런 것도 모두 문화콘텐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문학 연구에서 통용되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 학문의 초창기부터 배고픈 국문학 연구의 과정을 거쳐 오신 선생님께서는 급격하게 변해가는 IT시대에 국문학이 과연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우려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



각하는데요. 혹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주시지요.

**최** 조 선생이 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나는 조 선생과는 세대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문학 작품을 반드시 강의실에서만 감상하고 강의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신라불상, 불교사상, 신라시대 토기같은 것은 홀로도 아름답지만,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아름다움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문화콘텐츠를 잘 활용하여, 우리 문학의 저층에 깔려있는 아름다움을 끌어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서 제대로 된 가치로 상품화해야 하고요. 정부나 대학에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4)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아야 할 한국 고전문학

**조** 최 선생님의 말씀처럼 국문학의 근원적인 지식들이 IT기술, CT기술, 디지털 신기술과 잘 접목되면, 국문학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고도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나라들 사이에 울타리가 없어지고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 고전문학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주요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한국고전문학이 세계문화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한국고전문학은 우리 글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를 논하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문학에 접근할 때 발생하는 언어 장벽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체 내에 번역에 대한 관점이 제대로 서있는지, 또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다음 전체적으로 번역의 수준을 높여야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 학자들의 학문적 수준은 높는데, 이런 높은 수준의 학문을 어떻게 세계 학문시장에 상장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보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지 못하면 그 가치는 인정받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문

제들을 해결할 때에만 세계화 시대에 고전문학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최** 10여 년 전 어느 대기업 책임자가 훌륭한 인재를 선발할 때 경제학 전공자만을 뽑지는 않고 철학 역사 문학 등 인문학 전반에 걸쳐 인재를 등용한다고 말하더군요. 왜냐하면 인문학을 전공하는 이들에게서 기업을 살려내는 힘의 원천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인문학의 소양 없이는 사업을 성공시키고 확장하는 게 어렵다는 말일 겁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인문학의 위기다 말하지만 인문학 없이는 나라도 기업도 존립의 근본적인 토대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학자는 충분히 연구하고 강단에서 그 결과를 학생들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학자의 역할이 이러한 것이라면, 더 나아가 우리 국문학자들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집니다. 왜냐하면 국문학 연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한국적인 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문학에는 세계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 고유한 것, 다시 말해 한국적인 특수성만이 곧 보편성을 지니는 것이고,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럴듯하게 서양화해가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문학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보편성 운운하며 우리문학을 맞지 않는 서양의 논리로 색칠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한국적인 것을 잘 길러서 그것을 세계시장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국가는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해서, 예컨대 우리의 향가같은 것을 영어로 번역해내야 합니다. 또 그보다 먼저 한문으로 쓰인 수많은 고전들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대중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문화관광부같은 국가기관 산하에 번역부를 만들고, 해안을 가진 이의 책임 아래 이런 작업들이 진행된다면,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작업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조** 제가 알기로도, 19세기 말경 우리 문학이 외국어로 번역된 사례는 620여건 정도인데, 그 중 고전문학은 120종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략 16, 7%쯤 되겠죠. 사실 고전문학을 외국어 특히 서양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지금도 마

찬가지입니다. 고전문학 번역은 외국어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그 이상의 문화적·정신적 소양과 자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가 아직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 문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학회 가운데는 미국 중심의 아시아 학회, 일본 중심의 조선학회 및 여타 소수의 학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 중 아시아 학회의 경우에는 재미교포들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영어로 한국어 관계 논문을 발표하거나 기고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서 한국학의 비중이 처지는 편인데, 이것 역시 근본적으로 언어의 장벽 때문일 겁니다. 그 뿐 아니라 국내에서 국문학을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교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문학을 배우려는 외국 유학생들을 끌어들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문학을 배우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유학생은 거의 없는데, 그들이 한국에 와도 정작 한국 문학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국문학을 외국어로 강의할 수 있는 교수의 부족, 언어장벽으로 인한 국제학회에서의 활동 미비 등은 국문학이 세계화시대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로 등장했고, 이것들은 조만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5) 남북 고전문학의 만남, 그 현황과 비전

**조** 우리 국문학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남북한은 공통의 유산을 가지고도 서로 엄청나게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민족적인 과제로 문학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학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통합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선생님께서는 통일문제와 남북한 문화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있지만, 나는 그 중에 제일 첫째가 남북이 통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만큼 절실한 것이 없지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려서 소학교 2학년 때 해방을 맞이했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기대하자마자 곧 남북으로 갈리는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싸움의 당사자인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남북으로 갈린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억울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6·25 동란을 겪으면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 아침에 적이 되어 서로 죽이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실제로 봤습니다. 실로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형제지간의 싸움이 제일 무섭구나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날 남북의 정치적 통일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 정신적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의 문학연구자들은 고전문학에 대한 통합적 체계를 세우고 통합적 관점을 정립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통일문학사같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는 그저 학문의 일이 아니라 더 나아가 민족통일의 과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소중한 사명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북쪽은 될 수 있는 대로 개방을 해야 되고, 또 남쪽은 남쪽대로의 포용력을 가지고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정치적 문화적 통합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과는 약간 다른, 다소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근본적으로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워가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은 문학을 자기네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또 주체 문예론이나 미학에 따라 고전문학을 해석하거나 현대문학을 창작합니다. 북쪽에서는 체제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문학 외적인 이념에 의해서 문학이 해석되고 재단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반면 우리 남쪽의 문학사학자들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문학사를 서술합니다. 이렇듯 남북의 차이가 실로 엄청난 만큼, 남북의 문학사가 통합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남한의 경우 자유롭고 다양한 관점들의 문학사가 나와 있는데, 북한은 갈수록 더 교조화 되고 문학적인 해석 또한 점점 경직되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학사의 통합도 사실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이나 북쪽 모두 문학사를 보는 관점에서 유연성을 지니고 통합적인 시각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하겠지요.

## (6) 고전문학과 사회·제도적 문제

**조**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역사바로세우기, 문화콘텐츠, 한국 고전문학의 세계화, 남북문학의 통합 등 모든 문제들은 결국 국가 제도나 정책의 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고전문학의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글전용 혹은 한자/한글 혼용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난제이기도 합니다. 한자를 사용할 것인가 한자를 쓰지 말 것인가에 따라 고전문학에 대한 개념규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최** 오래 전 연세대학 재학 시절에 나는 최현배 선생이나 김윤경 선생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지요. 이분들은 일제시대에 한글운동을 통해 나라를 지키고자 하신 민족주의 애국자였습니다. 그분들은 애국애족의 정신이나 민족주체 의식을 고취시키려면 한글을 써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한자의 사용이 우리 문학을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한다는 생각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스승들 밑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나 역시 한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지니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과연 한자를 우리문자가 아니라 해서 매도하는 것이 옳은지 늘 반성하곤 했습니다. 사실 한자를 쓰게 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자 사용에서 파생되는 어휘의 풍부함, 또 그걸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상징효과, 의미의 다양화 등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학자로서 고전문학을 연구해 오며 내린 결론은 우리가 한자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한자/한글 혼용을 권장한다면, 궁극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한글전용만으로는 곳곳에 산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한글전용에 의해서 오히려 문제들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책입안자들이 좀더 멀리 바라보는 안목으로 한자교육 한문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조** 덧붙이자면,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배제될 경우 인간소외의 상황을 초래하고, 결국 우리 사회의 '사막화' 현상은 불가피합니다. 심지어 대학에서까지 경제논리에 따라 응용학문만 강조하고, 기업 또한 맞춤형 교육처럼 그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교육만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방지할 경우 대학에서는 결국 도구적 인간들만 양산될 것입니다. 이렇게 길러진 인간들은 도구로서의 사명이 끝나면 폐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로부터는 어떠한 창조성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응용학문 지상주의, 맞춤형 교육 등의 문제들이 인문학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좀더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인문학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무한한 능력대로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가 그나마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교육, 더 나아가 인문학의 핵심으로서의 문학교육이 충실해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전통과 역사,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어서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외면당해온 고전문학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 (7) 후학들에게 이르는 학자의 길

**조** 저는 이제 막 학문의 길에 들어선 입장이지만, 고전문학을 선택한 걸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다소간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연구의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수십 년 동안 어려운 학문을 해 오신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애환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자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느끼신 문제들이라든가, 후학들이 명심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최** 저는 국문학과에서 공부하는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국문학에 종사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김윤경 선생님 같은 분을 모시고 공부할 수 있었던 걸 지금까지도 자긍심을 가지고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분이 학문과 가르침에 임하는 태도를 이 자리에서 들

려드리면, 제가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핵심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윤경 선생님은 학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학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지요.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책만 보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웃지도 않으시고 늘 같은 자세로 책상에 앉아계셨지요. 나는 김윤경선생님 모습만 보고도, 참 훌륭한 분이라고 느끼며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학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교육자의 시간 동안 강의시간을 단 10분도 어긋 적이 없었고, 이것은 이유 불문하고 철저히 원칙으로 지켜가셨습니다. 대학원장같은 보직을 맡고 계실 때도 강의시간 지키는 일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조금 비껴가는 이야기지만 같은 시기에 연세대학에 재직하셨던 최현배 선생님의 경우는 김윤경 선생님과 많이 달랐습니다. 최현배 선생님은 수시로 수업에 늦으셨고, 심지어 50분 수업에 45분 되어서 들어오는 일도 있었지요.

휴강에 대해서도 두 선생님은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김윤경 선생님은 강의에 지독할 정도로 충실하셨습니다. 지금껏 그런 분을 보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국경일이나 휴일이 강의날하고 겹쳐있으면 어김없이 보강 날짜를 공고하셨습니다. 최현배 선생님은 심지어 시험 채점도 가끔 학생들에게 맡기셨지만, 김윤경 선생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시험 다음날 어김없이 채점 결과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학생이 선생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 분은 진정한 스승이었고, 절로 그분의 그림자도 밟지 못할 정도로 학생들은 경외감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분을 스승으로 모셨으니 저야 축복 받은 학창시절을 보낸 셈이죠.

최현배 선생하고 김윤경 선생은 문법체계가 다릅니다. 김윤경 선생은 분석적인 체계를 취했고, 최현배 선생은 절충적인 체계를, 이승령 선생 같은 분은 종합적인 체계를 취했지요. 문법체계가 각기 달랐지만, 김윤경 선생님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견해에 대해 조금도 비난하는 일이 없이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셨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학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선생님과 최현배 선생님은 여러 면에서 서로 대조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누가 훌륭하고

누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에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되기는 했지만, 최현배 선생님의 경우도 그 분만의 빼어난 자질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최현배 선생님 역시 훌륭한 학자이셨고, 좋은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국애족 운동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지금 대학 현실을 생각해보면, 두 분 모두 정말 소중한 우리 연세대학의 자산일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학교 교수는 첫째가 성실히 연구하여 좋은 논문을 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후학을 양성하는데 온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교수는 반드시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존경을 받자면 높은 인격자가 되어야 하고, 도덕적인 높은 교양을 쌓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정직하고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들에 대한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큰 만큼 그들이 교수를 판단하는 잣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모름지기 교수라면 그 높은 잣대에 걸맞은 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분야에서 뿌리내리고 이제는 원로 격에 속하는 나이가 되었으니, 내 위치에 걸맞게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고 소명이겠지요. 대학 사회에서 행해지는 이러저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을 통해 발표될 때마다, 나 역시 교수로서 정말 몸 둘 바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교수도 학생도 그저 개인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 앞에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고, 자신의 역할들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수는 더욱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요. 혼신의 힘을 쏟은 연구와 애정어린 교육과 바른 생활양식을 견지해서 학자로서의 역사적인 소명들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 저도 오랫동안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왔고, 인간적인 파스함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삼아 들려주시는 말씀은 저를 비롯한 후학들이 앞으로 학문에 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좋은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